특발성 척측 충돌 증후군에서 척골 단축 절골술

배경: 특발성 척측 충돌 증후군은 골절이나 조기 성장판 폐쇄 등의 병력이 없이 양성 척골 변위를 보이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손목 척측의 퇴행성 질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특발성 척측 충돌 증후군 환자의 임상 양상과 척골 단축 절골술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특발성 척측 충돌 증후군 환자 29명, 31예의 손목에서 척골 단축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손목의 전후방 방사선 촬영에서 척골 변위를 측정하였고, 전완을 중립 회전한 상태에서의 손목의 측면 촬영에서 요척골 거리를 측정하여, 척골 두가 원위 요골에서 전위된 정도를 평가하였다. 모든 환자는 술후 평균 32개월간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추적하였다.

결과: 평균 척골 변위는 술전 +4.6 (range, 2 ~ 7.5) mm에서 술후 -0.7 (range, -4 ~+1) mm로 개선되었다. Gartland와 Werley의 수정된 손목 점수는 술전 24예에서 불량, 7예에서 양호, 5예에서 우수로 평균 69.5±7.6점이었다. 이 점수는 술후, 24예에서 최우수, 5예에서 우수, 1예에서 양호, 1예에서 불량으로 평균 92.5±8.0점으로 호전되었다. 원위 척골의 후방 아탈구 소견이 9예에서 보였으나, 척골 단축 절골술 후 모두 정복되었다. 일곱 환자에서는 술전 수근골의 낭성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술후 일,이년 사이에 사라졌다.

결론: 특발성 척측 충돌 증후군 환자에서 척골 단축 절골술은 임상 증상을 호전시킬 뿐 아니라 이런 환자에서 흔히 동반된 원위 요척 관절의 아탈구도 정복할 수 있었고, 척측 수근골에서 보인 퇴행성 낭성 변화도 술 후 호전되었다.